

August Konkell 박사, 연대기, 세션 20

교만의 형벌, 여호아스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l입니다. 20회 '교만의 처벌'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와의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완전히 연루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유다에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통치는 불과 1년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야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회복되어 아합을 만나러 갔을 때 예후의 습격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람의 아내 아달라가 통치하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달라는 여호람의 아들인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으므로 다윗의 후손을 모두 멸절시키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통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 중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구한 제사장의 개입으로 막혔습니다. 여호아스가 제사장의 지휘 아래 있는 한 그의 통치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교만의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일단 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자신의 길을 가고 그의 왕국과 그의 통치는 전적으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모든 자손을 멸절시키려는 아달라의 시도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여호아스의 구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사는 이어서 여호아스가 숨겨짐으로써 보존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곱 살쯤 되었을 때, 제사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여 새 왕의 대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성전 주위에 경비병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모두 왕이 될 소년을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가까운 왕궁에 있는 아달라가 이 모든

소동을 듣고 알아보러 온다. 그리고 물론 그 순간 그녀는 신부의 지시로 체포되어 처형당한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사장과 백성과 왕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다윗 왕조를 보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결이 있고, 유다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아스의 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유다 나라, 즉 유다 지파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영향력 아래 북쪽과 함께 있던 동맹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 아래 여호아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이야기의 이 부분은 매우 훌륭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있고,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금이 모금됩니다. 이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정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레위인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세금을 수리비로 추가로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아스가 모금함을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성전 문 곧 성전 뜰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가져오기 위해 성전에 올 때, 이 헌금함에 추가 헌금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 헌금은 단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Kings와 이 시점에서 Kings를 뒤따른 연대기 작가는 이것이 어떻게 매우 성공적이었는지 보고합니다. 성전을 지원하고, 복원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아스 이야기의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되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성전은 외국의

영향으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여느 세속 왕이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전과 성전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대기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와서 이 성전의 태만과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선한 일이 뒤바뀌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에 반응하지 않고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신약성경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부터 스가랴까지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창세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보존의 전적인 책임을 맡은 이 제사장의 아버지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를 일곱 살이 될 때까지 키웠고 그 후에는 주님의 모든 길로 그를 가르쳤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왕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왕국을 보존한 사람의 아들을 죽일 만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Chronicler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을 너희의 왕국으로 삼기 시작할 때, 너희가 대표할 것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모든 것으로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능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외부에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의 후계자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물론 그에 따르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자신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통치는 그가 바라던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아람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큰 위협이 될 앗수르 국가는 사실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 한때 매우 위태로웠던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있는 힘. 그래서 그것은 아람 사람들과 같은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과 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에지온게베르 항구에 접근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션에서 이 항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제 무역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에서 큰 경제적 이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번영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속한 땅 곧 요단강 동쪽 땅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사엘은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공격했지만, 그 동안에도 분명히 일어난 일은 요아스의 행동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많은 반대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는 자에서 아들을 죽이는 일로 옮겨갔다는 것은 많은 원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자신의 궁정 내에서 음모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로 우리를 이끈다. 아마샤의 통치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요아스의 통치와 다소 비슷하지만, 역대기 기자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 심판의 재앙으로 끝나기도 한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연대기 작성자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법원과 그 밖의 모든 것.

그는 이것이 요아스의 왕좌나 아마샤의 왕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보좌에 계시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언약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대한 그의 증거는 그들의 생존 자체, 즉 그의 시대에 예후드 지방에서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계승한 아마샤의 통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했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무역로와 해운로를 통제하기 위해 참여했던 것과 동일한 확장된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전에 여호사밧이 행한 일, 곧 왕의 어머니 아달라에게 완전한 재앙을 초래하여 다윗의 모든 가계를 멸절시키려 했던 일을 다시 행하였더라. 그런데 아마샤는 같은 길로 돌아갑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훨씬 더 크고, 영향력도 더 크며, 에돔과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전쟁에서 성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 맞서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왕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매우 무뚝뚝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은유와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순전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대항하여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세력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의 비참한 전쟁으로 끝났습니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패배했는지에 대해 연대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유다를 침략하여 지파 전체를 실제로 모욕했습니다. 유다 나라 전체이다.

그래서 아마샤의 통치는 완전한 재앙으로 끝나고, 그는 외세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없는 모든 사건에 대한 연대기 작가의 프레젠테이션의 또 다른 예일 뿐입니다. 그것은 요아스에게도 통하지 않았고 아마샤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통치가 끝날 때쯤에는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불충실함은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기 작가가 독자들이 배우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교훈입니다.

불성실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0회 '교만의 처벌'입니다.